하나님의 말씀

자기 사랑과 사랑 없음의 위험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새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계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을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2106 하나님을 떠난 타라. 원초적인 힘으로 돌아간다....4
2287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 옳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5

영적인 교만과 오만....**7**
3641 영적 교만....7
7803 영적인 교만과 그의 위험....8
8281 거만의 위험....9

자기 사랑....**11**
0706 자신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 자기 사랑... 고집....11
2268 자기 사랑. 구원사역을 행할 의지가 별로 없음....12
7125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13
7795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14

물질 사랑....**16**
0688 세상의 소유와 자기 사랑... 영적인 소유와 이웃사랑....16
1408 조기에 파괴하는 일. 영적인 존재의 해방....17
1476 황금 만능과 재물. 잘못된 방향을 가진 의지....18
6320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 자기 사랑....19

사랑 없음....**22**
2444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일. 정의를 위해 나서는 일....22
2445 사랑없음. 사랑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세상의 싸움....22
2461 부도덕함. 기록되지 않은 법 (불문법)....23
2810 미움과 그의 영향....24
3173 사랑 없음과 창조물의 파괴. 화산 폭발....25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는 일....**27**
2223 이기심.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인 하나님의 개입....27
2901 잔인함.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28
3209 종말의 징조. 믿음의 싸움. 혼란....29

자기 사랑과 사랑 없음이 저세상에서 거두는 열매....**31**
2914 저 세상에서 자기 사랑이 고난의 상태를 연장시킨다. 도우려는 자세....31
3206 저 세상에서 무기력한 상태. 법칙....32
5322 사랑 없음이 저 세상에까지 주는 효과....33
7461 저세상에 믿음과 사랑이 없는 혼들의 운명....34

7644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파문.....36
올바른 분량의 자기 사랑.....**38**
6121 자기 사랑의 올바른 정도: ”너희 자신처럼....”.....38
6749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39
의식적으로 자기 사랑과 사랑 없음에 맞서 싸우는 일.....**41**
3272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자기 사랑.....41
6286 정욕과 욕망에 대항하는 싸움.....42
6557 성품의 변화. 잘못 된 사랑에 맞서 싸우라.....43
6706 대적자에 대한 경고. 대적자에 대항하는 싸움.....45
7097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싸우거나 또는 섬기는 일.....46
7557 자기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47
8326 연약한 상태. 사랑이 능력을 준다.....49
8461 능력을 구하는 기도.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일.....50
3910 사랑은 건설하는 힘이다. 사랑 없음은 파괴하는 힘이다.....52
4990 사랑과 능력을 받음. 사랑은 식었다. 진지한 경고.....53
5341 거만.....54

하나님을 떠난 타라. 원초적인 힘으로 돌아간다.

B.D. No. **2106**
1941 년 10 월 10 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고, 소멸된다. 그러나 내면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영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에서 나온 생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생명은 근원의 생명에 소속되야만 하고, 근원의 생명과 하나가 되야만 한다. 왜냐면 이 생명이 한때 근원의 생명을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근원의 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원의 힘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존재했고, 그러므로 의지가 근원의 힘으로 돌아간 것으로 간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지가 이제 다시 연합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대적자의 그릇된 의지에서 생성되었다. 영적인 존재들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와 개인의 의식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에서 나 왔으며 원래는 온전한 존재로서 무한하게 행복해야 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신적인 것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그들 안에 가지고, 다시 창조하고 조성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을 생성되게 한 자의 잘못된 의지가 이런 존재들에게도 잘못된 의지를 넣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빛으로 가득 차야 할 존재들이 어두움의 존재로 변했다.

그들 안의 모든 것이 반대로 바뀌었다.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고, 존재는 오만해지고, 지배욕을 갖게 되었다. 존재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고, 욕망을 가졌다. 모든 신적인 것이 악마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한때 빛의 전달자로 정한 존재의 잘못된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들을 근원의 힘에게 돌아가게 하는 일은 단지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잘못된 의지는 변해만 하고, 한때 자신이 떠난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초기에는 존재가 의지를 바꾸지 않고, 자신을 생성시킨 자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존재의 의지가 묶임을 받게 되었다. 존재는 더 이상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언젠가 존재가 한때 거부했던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존재가 한때 사랑 없음으로 지배하기를 원했던 곳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까지, 일종의 강요를 받는 상태에 머물러야만 했다.

이제 모든 창조물이 존재에게 강제적으로 형체를 입도록 자신을 제공한다. 창조물은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묶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창조물은 끊임없이 소멸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물 안에 더 높은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는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인 성장은 단지 겉형체가 분해되어, 사라짐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비로소 형체가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원래의 상태가 자유였기 때문에, 형체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자유의 부족을 고통으로 깨닫고, 자유를 향한 욕망이 이제 또한 그에게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한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의지가 어떤 의무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서서히 하나님께 향하다. 그러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은 자유의지가 주어진, 이로써 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으로,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은 가운데 치르게 된다. 이런 자유로운 결정이 그의 영원한 삶을 정한다.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귀환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 새롭게 타락하는 일과 만찬가지로, 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가능성을 주고, 존재가 힘과 은혜를 자원하여 영접한다면, 존재에게 측량할 수 없게 힘과 은혜를 주는 정도로, 이런 마지막 결정에 개입을 한다. 그러나 존재가 원래 초기부터 자신에게 정해진대로 가장 빛이 충만한 상태에 다시 도달하려면, 존재가 스스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 옳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

B.D. No. **2287**
1942 년 4 월 2 일

사람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을 주었고, 그에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밝은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사명을 주었다. 다시 말해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무엇에게 향할지는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가 자신의 소원의 목표를, 즉 그의 사랑의 대상을 결정한다. 영적인 소원과 이 땅의 소원이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

는 사랑과 잘못된 사랑의 특징이다. 왜냐면 사랑은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까이 하게 해서, 그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이미 불 붙은 것이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은 두가지에 접근하게 된다. 그에게 세상의 재물와 유혹이 제공되지만, 영적인 재물도 또한 그에게 제공되고, 이로써 사람 안의 사랑이 이제 목표로 삼을 대상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랑이 커진다. 연합을 향한 소원이 이제 이 땅의 삶의 내용을 정한다.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강한지 여부에 따라 영적인 것이 또는 세상적 적인 것을 소유하려는 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행동과 생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랑은 사랑 없음과 같다. 왜냐면 세상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없애고, 세상 사랑은 자신의 소유만을 위해 추구하고, 절대로 이웃에게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 없음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비록 자신의 이웃 사람을 향한 그의 생각과 행동이 사랑이 없다고 해야만 할지라도, 자신은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사람 안에서 두 갈망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 사람 안의 어떤 갈망이 포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선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우세하다면, 그는 곧 세상을 향한 욕망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선의 기원이 하나님 안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밝은 화염으로 타오른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헛된 재물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런 재물은 지속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이 항상 자신이 갈망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고, 이런 잘못된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이끌 것이다. 그러면 혼 안의 하나님의 불씨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한 충동에 의해 질식당한다. 순수한 사랑이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갈망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적자를 목표로 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랑은 이제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는 인류의 특성이다. 왜냐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즉 하나님와 연결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 왜냐면 단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랑 안에 서게 되고, 그는 자신 안의 하나님의 사랑 불씨에 불을 붙이고, 자신을 사랑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 교만.

B.D. No. **3641**
1945 년 12 월 30 일

영적 교만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한다. 단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긴밀하게 진리를 구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사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생각해야만 한다. 사람은 실제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지식을 얻는다. 또는 그가 동의하는 외부로부터 온 지식을 받고, 그는 이를 굳게 붙잡는다. 이 지식이 그의 소원과 관점에 맞으면, 이 지식은 그에게 대부분 충분하고, 그는 모든 제공되는 지식이 자신의 지식에 합당하지 않다면,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거부한다.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하고, 그들 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면 단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인 지식을 깨닫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원한다. 사람이 아직 오류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믿음이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는 일을 막는다. 왜냐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가장 풍성한 지식을 갖고도 내적으로 겸손하게 머물고, 자신의 지식을 증가시켜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나중에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자신을 끝없이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빠르게 중단한다. 왜냐면 그는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에 항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거만함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을,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려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왜냐면 그가 영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의 생각으로 그에게 반박하는 모든 것을 이기려고 시도하고, 영의 역사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자신이 성숙하고, 현명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일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진리의 제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만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영의 영역을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비로소 그로 하여금 질문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겸손하게 진리를 구한다면, 비로소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계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교만과 그의 위험**.**

B.D. No. **7803**
1961 년 1 월 21 일

영적인 교만은 가장 큰 악이다. 왜냐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전적으로 모두 대적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의 심장이 겸손하게 변화될 때까지 묶여있을 것이다.

이 변화를 위해 대부분 한번 이상의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가는 일이 필요하다. 영적인 교만은 거만으로 인해 깊은 곳으로 타락한 자로부터 유전 된 죄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영원에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아주 적게 낮게 무능력한 것을 느끼고 이제 자기에게 능력을 선물해 줄 분에게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므로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으로써 자신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도 영접하는 일도 높은 권세가 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믿는 그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전적인 믿음 없음과 영적인 교만은 항상 함께 갈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절대로 이런 유전 된 악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흘러 갈 수 없다. 이웃들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영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주 희귀하게 성공한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그가 자신의 추종자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로써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큰 세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이 닥쳐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자신 안에서 약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야 한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간적인 소질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가 이런 부족하다는 생각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서서히 자신의 거만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식할 수 있는 그들이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삶의 환경에 처하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은혜이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는 항상 그에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대적자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세계 편에서도 그의 혼을 얻기 위해 새로운 파문을 가는 운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 이전에 자기가 전적으로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성공하면, 그가 죽기 전에 자신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데 성공하면, 그러면 그는 아직 저세상에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한 번 모든 창조물에 과정을 거치는 길을 갈 필요 없다.

그러면 혼이 이 땅에서 자주 그에게 비추어 주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빛에 저세상에서 도달하기 위해 싸워야만 하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혼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런 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혼이 이 땅의 육신을 벗을 때 자유의지가 유일하게 이 혼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거만의 위험**.**

B.D. No. **8281**
1962 년 9 월 24 일

내 말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심장에 영접하면, 그는 깊은 겸손가운데 남게 된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가혹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음이 자기가 항상 연약하고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것이다. 그는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와서 힘과 능력을 구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그는 이웃들 앞에서 교만해질 것이다.

이 교만은 남을 낮게 보고 사랑이 없는 판단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이나 영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거만한 사람은 이웃들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항상 믿는다. 이러 거만함은 그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내 대적자의 요소이다.

대적자는 사람들과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큰 무리의 피조물들을 자기와 같이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했다.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그가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봐야 할 때에 거만한 영의 것들이 아직 많이 달라붙어 있다. 거만함은 온전하지 못한 걱정스러운 증거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와 싸워야만 하고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웃들에 대해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 전적인 이해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은 겸손은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속한 것이다. 깊은 겸손은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그에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만든다. 겸손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게 하고 그는 예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베푼다" 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신 스스로 온전 하다 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높은 정도의 지식을 소유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계속 겸손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

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는 것으로 피조물 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하며 그러나 거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거만은 항상 그의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빛을 흐리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대적자의 일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가 대적자과 대적자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아직 이런 죄악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 내 대적자가 항상 너희에게 잘못 된 존귀감을 불어넣어 주고 너희 안에서 자만한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격할 만한 요소 찾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야 하고 모든 거만한 생각을 싹부터 없애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구원자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교만으로 타락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깊은 겸손의 길을 간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속죄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 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교만으로 인해 일어난 깊은 타락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단지 겸손의 길을 통해 이뤄진다. 너희는 인생의 길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깨달음과 다시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단지 내 도움을 부탁하기만 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아직 거만한 영에 있는 자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는 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웃을 포함하는 올바른 사랑이 발전되어 나올 수 가 없고 그는 자신의 거만 때문에 사랑을 선물하려는 나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만함은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고 내 대적자가 그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죄악과 싸우라. 너희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라 그러면 너희의 실수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실수를 작게 만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신을 잘못 평가해 스스로 새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겸손만이 너희를 성장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이로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겸손가운데 나에게 오고 너희의 기도가 진실되고 헌신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내 자녀로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능력보다 자신을 더 높임으로 내 대적자가 된 것이다.

아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 자기 사랑... 고집...

B.D. No. **0706**
1938 년 12 월 10 일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계속되는 자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짓누르는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태를 만든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바라보고, 점점 더 우울한 감정에 빠져 길을 잃고, 그들의 전체 상태는 결국에 가서는 여전히 끝없이 이유가 없이도 단지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들이 자신을 극복하기 에는 그들의 자기사랑이 너무 강하게 발전되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성취에서 자신들의 삶의 성취를 더 많이 찾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이성적인 이유로 거부하고, 자신의 완고함으로 훨씬 더 힘든 삶을 산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졌다면 그들의 삶을 더 쉽게 꾸려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단지 올바르게 사랑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혼의 억압으로부터 도피한다면, 인생 자체에 아주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인생은 동시에 균형이 잡히고 심장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항상 단지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있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일의 포기하는 떼 있고, 그리고 항상 계속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데 있다.

사람이 더 많이 자신을 낮출 수 있을수록 그의 영의 상태는 더 자유로워진다. 그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더 자주 연습할수록 그의 의지는 더 강해진다. 이런 일은 모든 성품을 고귀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웃사람의 행복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사라진다. 이런 일은 행동하려는 의지를 통해 이뤄진다. 자신을 다스리는 일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것이 그의 잘못이다.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그를 돕기 위한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절대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근본적인 악을 거의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항상 단지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를 아직 짓누르는 그의 상태를 끝내려는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마음에 단 한가지의 일이 올바른 효과를 준다. 이 일은 그의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이다. 그는 스스로 그의 잘못된 태도를 극복해야 하고, 정복을 당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기분에 고통을 당하고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정복을 당한다. 의지가 있는 곳에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이 비로서 사람을 모든 악에서 해방시킨다.

자기 사랑. 구원사역을 행할 의지가 별로 없음.

B.D. No. **2268**
1942 년 3 월 18 일

이 땅에서 구원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커지게 했고, 더 커지는 간격은 더욱 연약해지는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지식의 결핍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구원하는 일의 필요성과 축복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어떤 측면에서 의지가 묶여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특히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대적자가 그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생각할 때, 그가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그에게 강요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이 악하면, 그는 자유의지로 언젠가 자기의 의지를 악용했던 자에게 향하고, 이 자는 이제 자기편에 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려워지고, 그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자신의 대한 영향력을 많이 허용할수록,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그에게 더욱 어려워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전혀 사랑이 없게 된 대적자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의 역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임을 거부하는, 전혀 사랑이 없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일이란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의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소원이 단지 드물게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은 아주 적은 영적인 성공을 거둔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면,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항상 더 약해지고, 동일한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면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행하라는 재촉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항상 단지 도우려고 할 것이고, 사랑이 없는 세력의 권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는 일을 하려는 소원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적자는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은 대적자가 사람들을 항상 더욱 사랑을 버리도록 재촉하고, 사람이 대적자를 자원해 따르고, 파괴하는 역사에, 미움의 복수의 감정으로 거의 자신을 더 많이 제공하는 일로 드러난다. 사람들이 다시 악의 영향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간격은 항상 더 멀어진다. 이는 완전한 영적인 침몰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를 멈추게 한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존재들을 형체 안으로 다시 파문을 시킴으로, 대적자가 가진 영적인 존대들에 대한 권한을 다시 한번 빼앗는다.

아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B.D. No. **7125**
1958 년 5 월 20 일

만약에 너희가 단지 너희의 세상의 의무만을 성취하면, 비록 너희가 이런 성취가 너희 혼에게 아무 축복을 주지 못하는 이 일을 위해 양심적으로 애를 쓸지라도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내 앞에서 올바르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이 일이 자유의지로 행해지면, 어느 정도 자기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너희가 요구를 따르게 강요받지 않으면, 너희가 이기적인 이유로 따르는 요구들이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의무를 다하는 일을 자신을 위해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항상 단지 돕고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람 자신이 유익을 얻거나 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의무를 다하는 일로부터 유익을 얻든지 간에 의무를 다하는 일은 어느 정도 자신을 유지하게 위한 충동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단지 세상적인 유익이고 만약에 의무를 다하는 일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사람이 실제 직업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고 이 일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혼은 적게 또는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신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성취한다고 믿으면, 사람은 쉽게 자기만족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영적인 성장을 한걸음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질서있는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은 단지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으로 보일지라도 다른데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단지 한번 내일 너희의 모든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그러나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뤘는지가 아니고 너희 혼의 성장에 따라 평가를 받음을 생각해본다면, 너희가 모든 의무를 성취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혼에 대한 작업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스스로 해야만 함을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혼에 대한 작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의무를 다함과 함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더 많은 일을 행해야만 하고 항상 사랑이 이 일을 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이 땅의 삶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 그의 성품을 다시 원래의 성품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이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다. 왜냐면 그의 혼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에게 주어진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잃게 돼야만 하는 삶의 능력을 비로소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영의 능력을 얻지 못했으면, 그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간다. 그가 삶의 능력을 가진 동안에는 그는 이 능력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죽은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비로소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가 자신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었던 이 땅의 삶과 비교할 때 그가 이제 얼마나 불쌍한지 의식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삶을 능력을 주로 사랑을 행하는데 써야 한다. 왜냐면 그가 단지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쇠하지 않는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든 세상 재물은 소멸되고 심지어 사람 자신이 세상의 재물을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이미 내일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능력을 사랑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는 매일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준비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그는 부유하게 축복을 받고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영의 나라에서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어떤 것도 잃지 않고 단지 높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의무를 다한 일이 잘못 된 방향을 잡은 사랑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잘못 된 생각에 빠지게 하여 그가 자신에게 만족하고 더 일하는 것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생명에 언젠가 들어가기 원하면,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희는 너희를 되돌릴 수 없게 사랑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쇠하지 않는 재물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B.D. No. **7795**
1961 년 1 월 12 일

혼이 이 땅의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영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는 사람 자신이 그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정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의 삶을 자유롭게 강요받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혼에게 성장을 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저세상의 혼의 운명을 정한다.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죽음 후의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이로써 이에 합당하게 그들의 이 땅에 삶을 살게 경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은 아주 연약하거나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혼을 가꾸는 일에 미지근하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해 살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면, 그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에 희귀하게 도달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사랑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이런 삶은 그의 혼이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물질을 향한 갈망은 대부분 사람의 심장 안의 사랑의 불씨를 질식시킨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하고 자기 사랑은 단지 받기을 원하고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이 신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구하는 사랑은 신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혼에게 성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랑으로 충만에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행복과 인기와 명성이다. 이 사랑은 항상 단지 물질에 대한 것이고 절대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랑이고 사람들을 밑으로 끌어내린다. 그러나 절대로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자기 사랑을 키우게 항상 영향을 미치려는 전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유전 된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단지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에만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단지 제공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산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원하게 강요받을 수 없다. 그들은 자유롭게 스스로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또 다시 경고를 받고 권면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런 권면에 한번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혼의 성장성도를 정한다. 그가 혼의 이 땅의 과정의 마지막에 가서 혼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지 또는 혼이 가난하게 될지를 정한다.

그는 저세상에서 거할 혼의 운명을 정한다. 이 운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것과 다르게 될 수 없다. 사람의 관점이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면,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로소 그 안에 책임감이 깨어날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혼이 성장하게 돌봐야 한다는 깨달음에 일찍이 도달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의 이기심에 일찍이 대항해 싸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사람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혼이 영의 나라의 축복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두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정도의 혼의 성장에 도달하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혼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소유와 자기 사랑... 영적인 소유와 이웃사랑...

B.D. No. **0688**
1938 년 11 월 28 일

단지 너희의 의지가 영원한 하나님께 향할 때 사랑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은 항상 더 넓어지고, 이 영역 안에서 너희는 계속하여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전적인 사랑 없음을 통해 너희는 사람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멀어 졌는지, 그들이 항상 단지 자신의 만족 만을 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항상 악한 것 만이 나온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소유하려는 집착은 모든 나쁜 관습과 부도덕의 원인이다. 너희는 재물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이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항상 단지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불법적으로 또는 술법과 사기를 통해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으려고 할 것이다. 거짓말이 그에게 단지 작은 이익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웃사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진실된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은 축복된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부터 이웃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할 것이고, 이로써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허용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재산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게 저 세상에서 쇠하지 않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육신의 죽음 후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단지 사람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세상 유혹은 반대의 세력이다. 눈먼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쁨의 가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수단으로 이 기쁨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 세상의 운명은 가난하고 기쁨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이웃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저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 만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 만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한다. 자신의 소유를 자원하여 드릴 때 그는 두 배로 받고, 세상적인 면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더 많이 받을 것

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것이고, 단지 사랑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조기에 파괴하는 일. 영적인 존재의 해방.

B.D. No. **1408**
1940 년 5 월 3 일

무한한 생각의 혼란이 탐욕과 지배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완전히 무시될 것이다. 악한 영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모두가 재산에 탐하고, 교활함과 속임수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이 추구하는 일은 정직한 추구가 아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결코 자신의 축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단지 이 땅의 권세와, 안락한 삶과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악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또한 단지 악한 수단을 사용한다. 즉 폭력과 거짓말과 위선과 속임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구하고, 주는 일이다. 사람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일을 자신의 혼을 돌보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 산다면, 그가 어떻게 혼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는 극복해야 할 물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힘을 혼에게서 빼앗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 땅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함으로 인해 혼에게 큰 위험이 아직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을 소유한 혼에게 반항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모든 불의를 느끼고, 그의 분개가, 비록 너희가 이를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동시에 사람의 혼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강제적인 파괴를 통해 자유롭게 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물질 안에 함께 하고, 동시에 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일이고, 자신의 이기심과 소유욕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결코 축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작품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존재를 성숙시키도록 각 작품에게 시간을 정해주었다. 인간의 편에서 이기적인 이유로 조기에 강제적으로 파괴하는 모든 조치는 비난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들은 영적 인 존재를 미성숙 상태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지 못한 영이 다시 새로운 형체 안으로 묶임을 받게 되고, 그에게 다시 성숙하게 될 가능성이 제공될 때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사랑 없음으로 인해 그런 중단시키는 일을 행한 사람의 혼은 언젠가 힘들게 속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자주 그들의 성장이 완전히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시간을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끝없이 긴 시간 동안 묶어 놓은, 세상적인 것들의 증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혼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새롭게 세상적인 것을 갈망한다. 이런 일은 혼에게 영적인 쇠퇴이다.

아멘

황금 만능과 재물. 잘못된 방향을 가진 의지.

B.D. No. **1476**
1940 년 6 월 17 일

너희의 심장이 너무 지나치게 재물에 연연해하고, 이로써 너희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의 증가를 추구하면, 이는 큰 위험이고, 큰 불의이다. 너희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항상 단지 세상 물질을 증가시키는 일을 향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까이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원과 의지를 가진 세계에서 산다. 너희는 이 삶이 너희를 파문을 받은 상태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것을 잊는다. 이 땅의 삶은 너희가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삶을 물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너희는 항상 더욱 너희를 포로로 만들게 하고,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은 현혹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모든 악의 뿌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없다. 너희는 모든 세상의 성공을 즐거워하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뒤떨어진다.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느끼는 너희는 빛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빛의 대항해 싸우기 때문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온 가르침에 너희 자신을 닫는다.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의 잘못된 의지의 방향을 알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항해서 분노하게 된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사랑에 합당한 것만을 인정한다. 너희의 사랑이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향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너희는 너희의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구원이 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너희는 모든 관심을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향하게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생각과 소원의 결과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 의지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너희가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될 일이 이제 너희가 고통스러운 싸움을 거쳐야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원치 않게 재물을 잃어야만 할 것이고,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보며, 끔찍하게 놀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 물질이 가치가 없음을 깨달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이 아직 세상의 재물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아주 물질과 연합이 되어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의 소원에 대항해 싸운다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혼의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빛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단지 세상을 보고, 단지 순수하게 세상적인 손해만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직 올바른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의 생각은 잘못되고, 그는 항상 더욱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구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그러나 대적자의 소유인 것과 굳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 안의 세상 재물을

향한 갈망을 제거하고, 단지 영적인 재물을 갈망하게 되기까지, 그의 모든 추론은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의 내면이 밝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그는 인류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열망하는 원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로 섬기는 일. 자기 사랑.

B.D. No. **6320**
1955 년 7 월 28 일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 사람은 가장 온전한 창조의 작품으로써 사람이 이 땅에서 일어난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을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런 과장을 마치는 일이 거부할 수 없게 물질적인 창조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저세상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혼이 이 땅에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성장정도에 도달하고 성장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끔찍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 과정이 실제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땅의 단지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위해 먼저 이를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단지 희귀하다. 반면에 사람들의 의지는 아주 강하게 가능한 대로 창조물을 단지 육체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활용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돕는다. 왜냐면 창조물들이 의무의 단계에 있을 지라도 실제 섬기기 때문이다.

많은 물질들이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해체되고 이 물질은 항상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섬기는 과제가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형체를 입고 영적인 존재들이 강제적으로 위로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자유의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성장을 정체시키거나 심지어 후퇴하게 한다. 왜냐면 인간은 더 이상 의무단계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 항상 이웃을 섬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면, 비록 그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가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 땅의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자신의 혼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을 줄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는 이를 알 필요가 없다. 사랑이 실제 대부분 그가 일하도록 그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지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줄 수 있다. 왜냐면 자기 사랑을 더욱 만족시킬수록 이웃을 더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창조물 안에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이 빠르게 중단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할 영역으로 주어진 창조물에게 불리하게 역사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한 사람들의 행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창조물과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을 알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잘못 된 삶의 방식과 행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그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영의 나라에서 전적으로 끔찍한 상태에 도달한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처럼 자기 사랑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올바른 사랑을 향한 길과 이웃사랑을 향한 길은 끝이 없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55 년 7 월 28 일) 그러므로 단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향한 사랑을 저세상에까지 가지고 가고 이를 벗어나는 일은 아주 어렵다. 왜냐면 그가 모든 감각으로 갈망하는 것이 항상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나서 그를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즉시 사라지고 그럴수록 이런 갈망이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혼 스스로가 자신 안의 욕망과 싸우게 되기까지 이제 혼은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 이런 투쟁이 항상 유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물질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그들 자신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저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유익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이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이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섬기는 일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에게 섬길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람이 다시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물질에게 주어진 영적으로 정함받은 바를 생각해야 하고 자신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 그의 모든 생각하는 일과 축구는 일이 자신이 편안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항상 더욱 자신보다 더 낮은 성장단계로 떨어지기 위해 단지 물질적인 재물을 얻는 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자신에게 영적인 퇴보를 의미한다.

항상 성장은 진전이 돼야만 한다.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물질의 형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고 물질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러면 혼은 어려움이 없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날 수 있고 빛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비록 혼이 이 땅에서 살지 않을지라도 더 오랫동안 이 땅의 영역에 머물도록 혼은 물질에 의해 붙잡히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다. 물질의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혼이 얼마나 끝 없이 감사하는지를 너희 이 땅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감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원수임을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축복이 자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이 아직 너희를 묶고 있다면, 너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너희가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너희가 섬기는 사랑을 통해 너희 자신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때까지 물질이 너희를 묶는다.

단지 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이 너희에게 항상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준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전의 단계에서 처럼 너희 성장을 위해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고 사랑이 너희가 섬기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싸워 이기는 사람과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지 섬기는 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물질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의 이 땅의 성장 과정은 남김 없이 자신의 혼을 영화시키는 일에

성공하는 가운데 끝이 난다. 혼은 이제 영의 나라에서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일할 수 있고 이런 섬기는 사랑으로 아직 자유가 없고 빛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들의 사슬로부터 마침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혼들을 돕는다.

아멘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일. 정의를 위해 나서는 일.

B.D. No. **2444**
1942 년 8 월 9 일

사람들의 눈이 너무 멀어, 그들이 더 이상 어디에 정의가 끝나고, 어디에서 불의가 시작이 되는 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이 느낌은 그의 삶에 합당하고, 그의 내적인 생각과 그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세에 합당하다. 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사람의 삶이 이웃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불의를 더 이상 불의로 깨닫고, 멸시하지 않고, 관용하며, 좋게 여긴다. 왜냐하면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벗어나는 그들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라고 알려준다면, 그들이 이웃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바로 이러한 알림을 불의한 것으로 여긴다. 알려주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공개적으로 낙인을 받을 것이다. 이는 올바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복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자신에게 주는 것을 행하고, 말해야 한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운다면, 그는 가장 공의로운 존재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침묵이 불의를 허용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가 말을 함으로,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면, 그는 말해야만 한다. 이웃 사람의 혼을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는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놀라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은 다시 셀 수 없이 많은 잘못되고 불의한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의로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는 자신의 양심의 엄격한 판단이 그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 자신을 자신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심판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경고자와 권면자로써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넣어 준 것이다.

아멘

사랑없음. 사랑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세상의 싸움.

B.D. No. **2445**
1942 년 8 월 10 일

인류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시킬 수 없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요구하고 서로를 위한 삶을 요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처럼 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들 모두가 서로 간에 겉보기에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관계에 있고 심장으로는 항상 단지 자신

의 유익을 생각하며 이웃들을 대적자로 여긴다. 왜냐면 자신이 이웃을 통해 해를 입거나 불리하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인류는 기독교에 저항하고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저항한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극복하는 일을 의미하고 자신의 소원과 정욕을 뒤로하는 일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것을 희생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사랑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게 양육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가 희생한 것을 이웃에게 주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야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사랑이 할 수 있는 희생 제사이고 사랑은 행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귀하게 이런 희생제사를 이웃을 위해 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단지 자신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불편하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에게 동의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없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사람들이 이웃에게 행해지는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고. 그러므로 인류의 사랑없음으로 시작되어 항상 더욱 큰 사랑없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로써 지옥의 역사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역사로 여겨야만 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을 볼 때 모든 세상이 죄악 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외적인 결과를 보고 그들의 큰 사랑없음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이런 저조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사랑없음을 가장 큰 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유익을 따라 행할 것이고 사랑을 다시 거부하고 그의 결과로 단지 더 높은 사랑없음이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멸망을 추구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저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무자비함과 잔인함이 도를 넘어설 것이다. 모든 사랑은 식을 것이고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극심해질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부도덕함**.** 기록되지 않은 법 **(**불문법**).**

B.D. No. **2461**
1942 년 8 월 30 일

전반적인 부도덕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시대를 동반한다. 이는 영적인 침체에 대한 증거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웃사람들의 느낌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으며 이웃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 미풍양속과 깊은 도덕이 없는 세대는 종말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왜냐하면 예의 바름을 단지 사

람들의 장식물로만 여기고, 시대의 모든 흐름에 따라 모든 충동을 만족시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미풍양속의 법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만 한다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의 근거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정해진 사회적 질서 안에 살게 해주는 어떤 법도 자신의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민족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고,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법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이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 법을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이 법의 축복을 깨닫고, 인간적인 질서를 위해 반발하지 않고 순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이 갈수록 더 잊혀지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를 버렸다. 왜냐하면 이 법규들이 충동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어난 영적인 성장의 퇴보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더 충동적이 될수록, 그가 하나님을 덜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갈망한다. 다시 말해 육체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육체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이 땅의 삶을 즐기도록 인도하는,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세력에 빠지는 것이다. 이 영적인 세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법에 항상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가벼운 삶에 빠져 살게 만든다.

이런 세상 기쁨에 대한 자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혼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품위와 선한 관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일을 어떤 주저함도 없이 조롱하고, 놀린다. 각각의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로써 자주 가장 몰염치한 방식으로 거부한다. 왜냐하면 도덕이 사라지는 일과 영적인 타락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깨우쳐지지 않았다. 이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 말하지만, 그러나 훨씬 퇴보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성장을 혼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추구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벼운 생활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도덕을 세우고, 이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옛 법을 무효로 만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질 것이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행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혼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덕성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대한 모든 기준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미움과 그의 영향.

B.D. No. **2810**
1943 년 7 월 12 일

지금의 악한 영은 전 세계를 독을 살포하고, 사람들은 악한 영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미움은 파괴하는 반면에 사랑은 건설한다. 인류 사이에서 미움이 더 많이 역사할수록, 이

땅에서 파괴하는 역사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도 이런 증오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단지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자신들을 지배하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는 계속해서 미움 속에 살고, 미움이 낳는, 미움을 더욱 부추 기는 수단으로 항상 자신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증오는 사랑 없음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증오는 가장 끔찍한 성품이다. 왜냐면 증오는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증오를 통해 모든 고귀한 본능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증오 속에 사는 사람은 악마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 다닌다. 왜냐면 그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단지 미움과 사랑 없음을 전파시키려는 권세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권세는 크다. 모든 인류가 증오 속에 산다면, 그런 권세는 이제 더 커진다.

이런 일은 영적인 퇴보를 의미해야만 한다. 영적인 퇴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이 그들에게 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파괴하는 일을 자원하여 수행하는 점에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관심사는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과 노력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성된 것을 파괴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으로는 창조의 역사를 붙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심어 줌으로써, 자신이 불가능한 일인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사람들이 수행하게 이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만들고, 그들 안에 사탄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들 안에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서로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도록 이끈다. 사람들은 혼의 가장 큰 적이 그들의 혼에게 주는 대로 자원하여 실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항상 새로운 증오와 항상 새로운 파괴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중독된 인류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다가 간다. 왜냐면 그들이 사랑을 행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 없음과 창조물의 파괴**.** 화산 폭발**.**

B.D. No. **3173**
1944 년 6 월 28 일

미움의 세계에서 사랑이 태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서로 간에 원수가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재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의 종말을 의미하고, 사랑이 없는 일이 모든 방식으로 파괴를 돕기 때문이다. 사랑 없음이 파괴하려는 의지의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의지를 실행할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래로부터 난동을 부릴 능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난동을 부린다. 이런 일이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자신을 닫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옛 땅이 멸망하는 영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행동을 취하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옛 거처를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서로 다른 형체 안에서 이 땅의 성장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런 일이 세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이 흔들리고, 겉 형체가 전적으로 바뀌고, 모든 창조물들이 소멸되고, 그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거할 곳을 제공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형체가 생성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더 나아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살아 있는 창조물들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물들이 파괴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고, 아주 큰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고,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움과 사랑 없음은 파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세운다. 어떠한 것도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의지를 통해 그를 유지하는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사라져서, 다른 형체 안에서 그의 의지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되기까지, 머물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축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이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기심.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인 하나님의 개입. B.D. No. **2223**
1942 년 1 월 29 일

하나님이 너희의 상상할 수 없는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 효과가 있는 대항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의 상상할 수 없는 이기심으로 인류는 영적으로 멸망을 향해 간다.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 만을 생각하고, 이웃 사람의 운명이 그들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에 합당하게 그의 생각과 행하는 일은 영적인 면에서는 자신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만드는, 항상 단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만들려는 계산을 한다. 매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면, 매일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현재 세상 가운데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 만이 자신의 영의 형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의 위험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위험을 가능한대로 줄여주려고 시도하고, 자신을 희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위험보다 이웃 사람들의 위험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뒤로 미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고난이 없이 사랑을 행하도록 움직이는 일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큰 고난을 가져오게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고난이 사람들의 심장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의 비참함과 위험을 통해 그들 자신의 위험을 잊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사랑과 싸워야 하고, 항상 단지 이웃 사람들의 비참함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로소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성공을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바로 현재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강한 세상을 향한 갈망을, 이 세상의 재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 모든 생각이 단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제물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향해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징조에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타락이 일어남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권리의 침해를 이미 허용이 된 것으로 여기며 권리의 침해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것에 대적하는 시대의 영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나아가 볼 수 있게 대적자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올바른 일로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분명하게 대항하여,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항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자신들이 아주 적게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일을 당해야만 함을 느끼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제 단지 그들이 원하면,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 아직 그들 안의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만들어 화염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에 합당하게 사랑을 행하게 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기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실제 정함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잃은 그들의 재산과 재물을 가능한한 다시 얻기 위해 염려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에게 헛되게 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영을 떠난 상태의 결과를 짊어져야 만한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그들의 이기심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잔인함.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

B.D. No. **2901**
1943 년 9 월 28 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동요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되고 종말의 때의 전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에 예언된 대로 성취될 것이고 혼란은 항상 더 커질 것이고 세상의 위험은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을 것이고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는 항상 더 저조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항상 더욱 사랑이 없고 모든 방식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과 자신의 유익이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위험은 항상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분노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사람들은 가장 크게 잔인한 일에 그들의 손을 제공할 것이고 자신의 유익과 동물적인 정욕때문에 어떠한 일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복수를 할 것이고 전혀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때가 사람들이 공의에 대한 감각이 큰 시험을 받는 큰 요구를 받는 때이고 사람들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때이다. 이 때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지 어디에 날카로운 경계를 정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무엇을 용납을 해서는 안되는지 즉 침묵하거나 또는 심지어 동의하여 좋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결정해야만 하는 때이다.

이 때가 끔찍한 사랑없음이 가장 무시 무시한 처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피할 수 없는 때이다. 이 땅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전에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운명에 동참하게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상은 규모나 잔인함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비참한 일들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때가 종말의 때이고 끔찍함에 있어 단지 마지막 심판만이 더 능가할 수 있는 끔찍한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끔찍한 일은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말할 수 없는 불의를 끝내기 위해 행하는 일이다.

종말의 징조. 믿음의 싸움. 혼란.

B.D. No. **3209**
1944 년 8 월 2 일

영적인 전환의 시점을 아는 일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때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인간이 미리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헤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심판할 날과 시간이 언제 임하는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단지 종말이 가까워 졌음을 알고,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종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혼의 구원에 유용한 답변을 그들에게 해줄 것이다.

종말 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이 심판은 아주 엄격한 믿음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단지 몇 달 동안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싸움이 명백하게 시작되면, 사람이 모든 숨기는 일을 버리고, 공개적이고 무자비하게 모든 영적으로 추구하는 일을 대적할 것이고, 영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금지하는 법규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면, 종말 시간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마지막 심판을 매일 매시간 예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영적인 혼란과 세상적인 혼란에 빠질 것이고, 관찰해보는 일에 모든 곳에서 단지 퇴보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퇴보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사랑이 없는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다스리는 권세에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끝내지 않는 민족들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일어날 강력한 이 땅이 흔들리는 일 후에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이 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익숙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의미할 것이고, 이 때가 가장 크게 궁핍하고, 삶의 형편이 가장 힘들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 때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때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세속적인 교회의 권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구는 영적인 추구와 양립할 수 없고, 그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권세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전의 편안한 삶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공격한다. 때문에 세상의 사건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개입 후에 오래 가지 않아 믿음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사건들이 빠르게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의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그런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사랑 없는 행동과, 가장 깊은 타락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의 생각과 통해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는 일 통해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예상되는 시점을 깨달을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때를 알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인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반박할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무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하게 할 것이고, 비참함과 환난을 통해 자신을 지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무리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세상이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고난이 가까운 종말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라. 인류의 행동과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과 인류의 세상을 향한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라. 인류가 분명하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을 행하고, 이웃 사람의 생명과 소유물 어떤 것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거짓이 승리의 축하연을 벌이고, 진리에 대적하면, 너희는 종말이 멀지 않음을 알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선포가 된대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 해체를 가속화 하고, 그러므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을 하는, 파괴하는 원칙을 따라는 사람의 시대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종말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온다. 즉 현재의 형체를 가진 이 땅의 종말이 오고, 현재의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종말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오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고, 너희에게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희에게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 너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종말을 경험하게 될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종말 전의 싸움의 기간에 하나님의 전사로써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너희의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고, 자연의 권세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믿음의 싸움의 시간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의 영을 밝게 해주고, 너희의 생각을 인도하여 너희가 올바른 것을 깨닫고, 단지 올바르게 깨달은 것을 말하고, 이웃에게 전하게 할 것이다.

아멘

저 세상에서 자기 사랑이 고난의 상태를 연장시킨다. 도우려는 자세.

B.D. No. **2914**
1943 년 10 월 8 일

영의 나라에서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힘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왜냐면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게 되는 일이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목표이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설교 된다. 다시 말해 빛의 존재들이 구속을 받지 못한 혼들이 단지 사랑 만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빛의 존재들은 혼들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준다. 어떤 혼도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 높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이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영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일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면 그러면 혼은 단지 자신의 운명에만 관심을 갖고, 아직 혼을 무지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자기사랑에 아직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혼들의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사랑이 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는다. 왜냐면 이런 혼은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혼은 불의한 방식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느낀다. 왜냐면 혼의 이기심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이 다른 혼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이런 혼들에 비해 고귀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의 주변에 고통 당하는 혼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가혹하고, 감정이 메마르고, 다른 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혼이 이러한 동안에는 또한 혼들의 고통을 아프게 느끼지 못한다. 단지 혼 안에서 사랑이 불타올라, 혼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한다면, 혼의 고통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혼이 부드럽게 되기까지, 자신이 동인이 되어 도우려는 자세를 갖기까지, 자주 끝이 없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혼은 단지 빛의 존재가 주는 가르침을 통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혼이 전적인 자유의지로 자신이 도우려는 결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의 자기 사랑을 뒤로 물러나게 해야만 하고, 자신의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야만 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혼들의 위험을 적게 만들어 주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혼의 무기력한 상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혼은 능력의 공급을 느낄 것이고, 항상 더욱 사랑 안에서 돕고, 역사할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혼의 상태는 이제 더욱 자유롭게 될 것이고, 혼은 이제 자신의 주변이 항상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혼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혼의 지식은 증가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혼의 의지는 항상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혼이 사랑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다. 왜냐면 혼이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의 목표를 깨닫고,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통해 자신이 구원하려고 노력한다.

아멘

B.D. No. **3206**
1944 년 7 월 30 일

힘을 받지 못하는 혼은 일하지 못하고 머문다. 이런 일하지 않는 상태는 단지 사랑의 역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혼이 저 세상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 혼에게 사랑을 행할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의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 축복이 됨을 그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아 둘 수 있고,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사랑을 행하려는 결심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땅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혼이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다르다. 저 세상에서 무기력한 혼은 원하기만 할 뿐,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의지가 어떠한 지에 따라 존재에게 힘이 주어질 지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 있는 혼은 성숙한 존재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이 땅의 사람은 영의 세력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염려없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비록 저 세상의 상태가 전적으로 희망이 없지 않을지라도, 이 희망은 언젠가 쓰라리게 후회하게 될 거짓된 희망이다.

혼이 이 땅에서 진지하게 높은 곳을 추구함으로,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아, 견뎌야만 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게 크다. 무능력함은 어떠한 말할 수 없게 위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는 혼이 마음대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다른 존재의 사랑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혼에게 사랑이 아주 적게 있고, 함께 고통 당하는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적다. 혼이 계속하여 자기 사랑에 머문다면, 혼이 단지 자신을,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자신 주변의 혼의 운명에 동정심이 없다면, 이처럼 사랑이 없는 혼은 사랑을 행하는 존재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서, 영원한 기간 동안 자기 사랑에 머물러야만 하게 될 수 있다. 혼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단지 자신이 다른 혼을 돕는 대로, 자신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혼의 자기 사랑이 빛의 존재가 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막고, 혼에게 어떤 것도 주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없게 한다. 왜냐면 혼 자신이 베풀거나 또는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혼이 이제 자신의 눈이 먼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질 수 없게 되는 일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혼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 혼이 아직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땅에서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이 된다. 왜냐면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주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사람들은 이 은혜를 영접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저 세상에서는 존재가 원하고, 사랑하려는 생각을 자신 안에서 깨어나게 하고, 이로써 그에게 마찬가지로 능력이 전해질 수 있게 만드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그러나 많은 혼들은 아주 강팍해져, 어떠한 사랑하려는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혼에게는 이 상태가 견딜 수 없는 상태이고, 혼 스스로 이 상태를 끝낼 수 없다. 그럴지라도 혼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동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동료들의 운명이 혼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자신 안에서 사랑이 울어 나오게 한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동료들 도우려는 가장 작은 의지가 이미 혼에게 힘을 주고, 혼이 이런 힘의 공급에 주의를 기울이면, 혼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혼들을 돕는 일이 혼에게 내적인 행복감을 준다.

그러면 무능력한 상태와 전적으로 일하지 않는 상태는 극복된다. 그러면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 즉 가르치는 존재가 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 졌는지, 왜 이 계명을 성취해야만 하는지, 혼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알지 못하는 혼이 빛과 능력을 받기 위해, 혼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혼의 운명을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이제 전해줄 수 있는 지식을 받기 위해, 빛의 존재들의 가르치는 일이 이제 시작돼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무능력한 혼이 영원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숙해져,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자신에게 빛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저 세상에서 축복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그는 이런 상태를 쉽게 피할 수 있다.

아멘

사랑 없음이 저 세상에까지 주는 효과.

B.D. No. **5322**
1952 년 2 월 23 일

사랑 없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아주 끔찍하게 역사한다. 왜냐면 사랑 없음이 가장 두꺼운 겉 형체로 혼을 감싸, 어떠한 빛도 혼에게 도달할 수 없게 하여, 혼이 영원히 어두움 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빛은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의 혼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은 빛을 발산하고, 내면으로부터 혼을 밝게 해주고, 겉 형체를 해체시킨다. 그러면 빛이 이제 외부에서 역사할 수 있고, 혼은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이 이 땅에서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지식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한 혼에게 저 세상에서 빛이 보장이 된다. 어두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혼에게 모든 것이 계시되고, 더 이상 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된다. 왜냐면 혼 자신이 사랑을 통해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일은 혼이 영원히 멸망 받는 일이다. 왜냐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는 혼은 축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은 전혀 사랑이 없는 자의 희생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없는 상태를 자신의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고, 단지 자기 사랑이 강하고, 이웃을 사랑이 없게 대하는 혼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왜냐면 사탄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혼을 유혹하고, 자신의 느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일은 혼에게 죽음이고, 사람의 생각에 독약이고, 생각의 결과가 진리가 아니고, 악한 의지를 갖게 한다. 이로써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다시 악을 생산한다. 이런 일이 다르게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고, 사랑이 없음과 미움이 나타나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증가된 악으로 저 세상에서 역사하여, 그 곳의 혼을 항상 더 깊은 심연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심장을 더 강팍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사탄을 진실로 혼의 가장 큰 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일이 저 세상에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지 사랑으로 이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저 세상의 혼들에게 병든 혼에게 약처럼 역사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런 병든 혼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강팍한 혼도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초기에는 자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혼이 한번 사랑을 행복으로 느끼면, 사랑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변화되게 한다.

사랑이 대적자에게 대항하는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이다. 대적자는 사랑에 대항할 수 없고, 도망치고,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의 비추임에 영향을 받기 전에 자신의 희생자를 놓아준다. 그러므로 사랑 없음에 대항해 싸우라. 사랑 없음이 멸망으로 인도함을 알라. 반면에 사랑의 역사는 너희에게 빛의 나라를 열어주고, 너희가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사랑의 부족함과 이 땅에서 사랑이 없는 삶의 방식의 결과로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이 빛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알라. 사랑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 모두를 축복되게 할 수 있다.

아멘

저세상에 믿음과 사랑이 없는 혼들의 운명.

B.D. No. **7461**
1959 년 11 월 22 일

이 땅에서 전혀 믿음이 없었고 전혀 사랑이 없었던 혼들은 끔찍한 상태로 저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혼들을 숫자는 아주 많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자기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고난의 때를 거친 후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그림자의 때에 세상 한가운데 그들이 아직 그들의 죽음을 생각할 수 없을 때에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당시 가지고 있던 상태가 유효하고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혼을 위해 준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그들의 믿음은 소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표면적인 믿음이다. 그들은 죽음과 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세상 한 가운데 있고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사랑은 새로운 영역이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자신을 생각하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신과 가장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람의 운명은 끔찍하다. 그들이 영원한 문 앞에 서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빛도 비추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는 처량한다. 왜냐면 그들은 유일하게 영의 나라에서만 가치를 가진 어떤 영적인 재물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야만 했던 혼들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단지 불친절한 영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여긴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운명에 적응할 수 없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이 세상에서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단지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졌던 상태에 빠져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두움 가운데 가난하고 처량하게 머물러야만 하는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는 혼들과 서로 만나면, 자주 다른 혼들을 무례하게 대한다.

그들은 깊은 여명의 상태에서 방황하며 밤과 안개 속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너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빛을 줄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 밤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때까지 그들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빛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들은 이제 진지하게 그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혼이 스스로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서히 그들의 의지를 바꾸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게 그들을 돕기 원한다. 그러면 이런 혼들이 원하면, 그들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게 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난다.

그러나 흔들이 이런 변화를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기 전에는 위험이 크다. 죽은 혼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상태보다 위험한 상태가 훨씬 크다. 왜냐면 세상에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진지함을 가지고 그들의 혼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려는 의지가 혼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주어 혼은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전혀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을 전적으로 양심이 없이 살면서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자기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죽음 후에 혼이 맞이하게 될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죽기 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로써 그들이 정화되고 저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그들은 이를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종말은 가까이 다가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종말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놀랍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주 종말을 생각해야 한다.

그는 가볍게 종말을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항상 언제든지 그가 이 땅을 떠나야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영접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를 긴밀하게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구해야 하고 공포나 어두움이 없이 단지 빛과 축복만이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자신의 혼에게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기를 구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하다. 사람이 유일하게 영원히 가운데 거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이 유일하게 혼이 영의 나라에서 맞이할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멘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파문.

B.D. No. **7644**
1960 년 7 월 9 일

영적인 죽음은 혼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다. 왜냐면 혼이 이 땅을 떠나면,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존재하고 자신을 의식하지만 전적으로 능력과 빛이 없다. 이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만약에 사람편에서 효과가 충분하게 중보 기도하여 혼이 이를 통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지 않으면, 혼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떠한 직접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물질 안으로 파문을 다시 받게 한다.

혼이 이런 상태에 무감각하면, 빛이 충만한 영의 세계에서 또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아주 강퍅해져 분노에 불타오르는 가운데 그가 믿는 것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는 권세에 대적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항상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지고 강퍅해져 굳은 입자가 된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성장은 불가능한다. 그러면 혼은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의 길을 다시 한번 가야만 한다. 왜냐면 언젠가 이 혼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죽음에 빠질 위험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면 그들은 종말의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산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물질로 강퍅해져 있다. 왜냐면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에게 만들어 줘야 할 영적인 생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세상의 주인에게 빠져서 그의 재물을 추구한다. 그의 재물은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혼에게 확실하게 영적인 죽음을 준다. 그들이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로 저세상으로 가면, 그는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를 사랑하는 생각을 영의 나라로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친구를 희귀하게 두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의 생각만이 혼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랑하는 생각은 모든 사랑이 충만한 기도는 이런 혼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혼이 변화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역사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난다.

그러면 혼은 혼에게 새롭게 파문을 받게 하는 상태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모든 사람은 사랑의 힘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생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이 없이 살면, 너희 혼의 영적인 입자가 결국은 강퍅해질 것이고 혼은 비참한 상태에 처할 것이다. 왜냐면 죽음은 그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러나 고통이 충만한 무기력과 어두움 가운데 근근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왜냐면 이 땅에서 피하는 일이 너희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는 항상 사랑의 역사를 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면, 죽음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생명으로 깨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극복한다. 너희 모두는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단지 이 불씨에 불을 지피면, 절대로 이 불을 꺼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항상 새로운 능력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안의 이런 사랑의 불씨를 한번 타오르게 하면, 너희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게 강요받을 수 없고 단지 너희가 영적인 죽음의 끔찍함을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동인이 되어 이런 끔찍함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에 의존한다.

너희는 이런 도움이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행해지면, 그들의 사랑하는 생각이 너희를 뒤따르면, 너희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단지 사랑이 구속한다. 단지 사랑이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능력을 얻어야 한다.

아멘

자기 사랑의 올바른 정도: "너희 자신처럼...." B.D. No. **6121**
1954 년 11 월 27 일

너희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진정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갖고 싶은 동일한 것을 그에게 주면, 너희는 그를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단지 이런 이웃사랑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자유의지 안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이 사랑은 너희에게 영적 축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희생하기 원하면, 이웃에게 줄 수 있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더욱 가치가 있고 혼을 위한 성공도 더 크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 사랑이 허용 된다. 왜냐면 이는 이 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육체에게 준다. 단지 자기 사랑이 정도를 넘어서 자기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주는 방향이 잘못 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자신처럼" 이라는 말을 첨가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을 이루려면, 그가 자신을 염려하는 만큼 자기 이웃을 염려해야만 한다. 사람은 이제 심장에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자발성에 따라 쉽게 혹은 힘들게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나 스스로 이웃보다 자신을 뒷전에 두는 사람의 심장이 아주 자원하여 사랑을 행하려고 한다. 그는 쉽게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자유하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지만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 자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과 계명을 통해 타이름받지 않고 행하는 사랑이 비로소 바른 사랑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사람이 내적인 갈급함이 없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초기에 단지 이 계명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가 그 안에 사랑의 작은 불씨가 점점 더 불붙어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이 일이 사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비로소 평가받는다.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는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많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나칠 때가 그런 경우이다. 그는 또한 작은 것을 나눠야 한다. 이 때문에 그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가 넘치게 되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가 사용한 잣대로 내가 그를 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먼저 이를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준다. 그의 댓가는 하늘에서 진정 크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많이 희생할수록 그는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더욱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와 연합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B.D. No. **6749**
1957 년 1 월 28 일

적은 정도의 자기 사랑이 너희에게 허용이 된다. 왜냐면 이런 자기 사랑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고 너희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자기 사랑이 없으면,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고 너희의 영적 운명 앞에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처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 사랑의 정도는 단지 작아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나와 이웃 사랑이 실제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항상 자기 사랑을 최소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사랑으로 변화 된 존재는 이제 아직 불행한 존재들을 전적으로 돌보게 된다. 그는 항상 돕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더 이상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신이 표현할 수 없게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는 또한 자기 사랑과 씨름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작은 정도의 자기 사랑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람은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볼 권리 때문에 자신의 이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사랑의 정도가 아직 크다면, 그는 이웃에게도 또한 같은 정도를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웃 사랑을 많이 행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그의 혼이 또한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궁핍한 이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삶에 필요한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가 내 계명을 따르기 원하면, 자신의 육체적으로 행복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혼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사람의 부유한 삶이 그 자신에게 더 많이 사랑을 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너희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이 말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쁨을 절대로 금하지 않았다. 너희가 너희에게 갈망할만 하게 보이는 같은 것을 이웃에게 제공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혼의 성숙한 정도가 너희 안에 이 땅의 삶의 기쁨에 대한 갈망이 항상 줄어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은 증가되게 한다. 왜냐면 올바른 사랑이 너희 온 심장을 충만하게 채우고 점점 더 자신을 위해 갈망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을 때 이런 기준을 줄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이 스스로 올바른 정도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자극을 해줘 이로써 사람 자신이 누리는 같은 정도로 이웃이 누리게 해야만 했다.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를 이 전에 이미 불타오르게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자극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즉 나 자신이 그가 이제 내면으로부터 이웃 사랑을 행하도록 그

에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서 자신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한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항상 사람들 자신이 사랑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일이고 그가 자신을 위해 갈망하는 것을 동일한 정도로 제공하는 일이다. 왜냐면 육신을 입은 후 초기에는 아직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계명을 통해 이런 자기 사랑에 이제 한계가 정해졌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이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계명에 주의하면, 너희는 정당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 내 계명은 너희에게 이웃 사랑을 더 우선에 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다. 그들의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보다 훨씬 강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이 내 계명을 무시하는 동안에는 내 대적자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자기 사랑.

B.D. No. **3272**
1944 년 9 월 27 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자기 사랑에 대항해야 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혼에게 죽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주 작은 정도로 자신을 사랑해도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고의적인 손상시키는 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목적이 없이 그에게 생명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과도하게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실제 그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즉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가 되게 해야만 한다. 인간은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 사랑을 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는 머지않아 자기애를 몇배나 능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 안의 사랑이 아직 밝은 화염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웃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항상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는 계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아직 지배적인 사람은 자기 사랑과 싸우라는 계명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만 하고, 그는 먼저 이웃 사람을 위해 자신에게 덜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그가 처음에는 내적인 동기가 없을지라도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자신을 강요한다면, 그 안에서 곧 사랑이 불붙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내면에서 동인이 되어 돕고, 기쁘게 하는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사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행한 것이 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생각이 없이 자신의 혼을 구원하고, 그가 사랑 때문에, 선한 의지 때문에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심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요구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사랑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는 성장하는 일에서 끊임없이 퇴보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신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신적인 사랑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단지 세상 재물을 구하고, 따라서 혼의 성장을 방해한다. 왜냐면 단지 주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나눠 주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려는 의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주라는 계명을 통해 주도록 재촉을 받아야만 한다. 그가 이제 계명에 순종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그는 서서히 사랑을 행하도록 양육을 받고, 사람이 더 많이 자기 사랑과 싸울수록, 사랑을 행하는 일이 점점 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그는 이웃 사랑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 왜냐면 이웃 사랑이 심장에서 나올수록, 그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인간이 더 많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된다. 반면에 자기 사랑은 그를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한다.

사람 안의 영이 생명력이 있게 되려면,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었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끊임없이 대적자의 권세에게 자신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이 자신을 더 많이 포기할수록, 즉 사람이 자기 사랑을 극복할수록, 그는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왜냐면 이웃 사랑이 분산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붙잡고, 그와 연결을 이루고, 그를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존재로 만든다.

아멘

정욕과 욕망에 대항하는 싸움.

B.D. No. **6286**
1955 년 6 월 16 일

너희의 모든 욕망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를 아직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려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 것들은 너희의 이 전의 성장 과정에서 온, 아직 너희에게 붙어있는 모든 정욕과 욕망들이고 이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아직 힘들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런 충동과 정욕을 통해 너희에게 역사해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막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충동과 정욕은 나와의 연합에 장애물이다. 왜냐면 이런 충동과 정욕은 신적이지 못한 성품이고 온전한 존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와의 연합이 이루질 수 있기 전에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제 단지 물질을 향한 모든 갈망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물질에 대한 갈망은 항상 내 대적자에게 속해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갈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감각 만을 만족시키는 것을 소유하려는 갈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의 감각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성취되는 욕망이다. 사람들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것이 욕망에 속해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힘을 드려 이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또한 내가 주는 세상적인 공급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이 땅의 삶도 축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제공되고 내가 사람들이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라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 내 사랑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선물해주고 그들의 이 땅의 삶도 축복될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그들의 감각을 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안에 아직 세상 즐거움과 소유와 자극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 그는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갈망은 내 대적자의 무기이고 자주 내 대적자가 성공하게 돕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이 땅에 삶을 살기 위해 적합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힘은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단지 이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의 관점이 다시 세상을 향하면, 그가 세상에서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어떤 것을 보면, 그의 이런 소원은 즉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땅은 타락한 영들의 나라이고 이 땅은 내 대적자의 나라이다.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이 땅의 세상에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항상 단지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그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나와 그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모두 요구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 아직 한 눈으로 내 대적자의 나라를 주시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나와 그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모두 요구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 아직 그의 눈을 내 대적자의 나라를 훔쳐보는 사람이 나에게 도달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이 너희에게 갈망스럽게 보이는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제 진지하게 이에 대한 갈망을 억제해야만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선물하는 것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다.

너희가 갈망하며 수고하지 않고 받은 것을 너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고 자원해 나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으로 만족하라. 항상 모든 올라오는 갈망을 죽여라. 이런 갈망을 항상 내 대적자가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해 설치하기 원하는 덫으로 여겨라. 너희는 내적인 싸움이 없이는 이런 갈망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추구하는 대상이 나이면, 너희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 왜냐면 세상이 너희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갈망은 하늘을 향해 있고 물질이 너희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물질을 경시하는 것을 배우고 물질이 너희를 섬겨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품의 변화**.** 잘못 된 사랑에 맞서 싸우라**.**

B.D. No. **6557**
1956 년 5 월 29 일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가장 큰 이득은 나와 연합하는 일이다. 너희는 나와 연합하는 일을 너희의 목표로 여겨야만 하고 너희가 나와의 연합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쉬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나를 믿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제 연결을 이루기 원하는 존재로서 나를 깨달아야만 하고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과 같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소원이 처음에는 아직 내 대적자에게 속했던 의지가 나에게 향했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이제 나를 생각하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를 나와 연결시킨다. 그러나 올바른 연결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과 너희의 성품을 내 성품에 적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단지 온전한 존재와 연합할 수 있고 너희가 이런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야만 한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된다. 너희는 이 힘으로 너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너희의 의지는 이제 나에게 속하고 그러므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내 대적자에게 속하는 일이 동시에 내 사랑의 힘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비로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일을 위해 내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힘은 사랑의 빛이고 사랑의 빛은 다시 사랑을 행하는 일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이제 사랑을 행하면, 너희는 이 힘에 대한 권리가 있고 나 자신을 너희에게 더 가까이 이끌게 된다.

나는 그 자체로 사랑이고 그러므로 나와의 연합은 사랑이 사랑과 합쳐질 때 단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이는 어떤 사랑의 역사도 성취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면, 비록 너희가 생각으로 나와의 연결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사랑 속에 살 때 무의식적으로 나와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너희 안에 떠오를 것이고 더 이상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축복될 수 있기 위해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 나 자신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내 힘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일은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 어렵지 않다. 반면에 자기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일은 어렵다. 내 대적자가 그런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주는 사랑의 빛에 접근할 수 없고 나는 아직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의지를 드려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로써 나 자신이 그와 연합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저세상에서 그가 다른 생각을 하도록 인도하는 일이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기 사랑에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혼들의 고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가 절대로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 먼저 성품이 변화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완전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화돼야만 한다. 단지 이런 시도를 하는 곳에서 나는 내 힘으로 돕는다. 왜냐면 사랑은 사랑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나와 연결을 이루고 영원히 나와 연결 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

아멘

내 대적자가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드러난다. 왜냐면 그가 단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가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을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공격하고 그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게 유혹한다. 그는 절대로 선한 것을 줄 수 없는 적대감을 만들어 내고 자신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는지 어떻게 서로 간에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는지 이로써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 아래 들어오는지 조롱하면서 바라본다. 너희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선하지 않은 말과 모든 잘못 된 행동을 대적자의 역사로 여기고 이에 대항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에게 양보하면 할수록 그는 그가 설치한 사슬을 더욱 세게 조이기 때문이다.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곳은 평화와 일치와 서로 간의 이해와 용서가 있다. 왜냐면 그곳에 내 역사를 허용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 대적자가 거하는 영역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영역은 사랑 없음과 미움과 원수 맺는 일과 배반과 혼란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아직 대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고 너희의 사랑의 힘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고 균형을 이루고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너희는 이런 영향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종말의 때 사람들이 스스로 그에게 부여하는 큰 권세를 갖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이며 유지자와 격리되어 있고 선한 영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대적자가 아무런 방어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이끌어 드리려는 내 대적자에게 좋은 공격할 표적이다. 왜냐면 인류 가운데 내 임재를 유일하게 가능하게 해주고 내 대적자로부터 강한 보호를 해주는 믿음과 사랑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사랑이 없는 행동과 말들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이미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를 일상 생활을 다스는 공의로운 싸움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또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그들에게 행해지는 일에 대해 눈에는 눈으로 이빨에는 이빨로 대항한다. 그들은 이 가운데 내 대적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단지 자신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모든 수단이 올바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안에서 단지 사랑이 없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그들이 심한 말을 사용하거나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면, 그들은 이미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경고하게 허용해야 하고 그들을 묶으려는 자들로부터 도피해야 한다. 그들은 내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구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사랑 없음이 일으킨 일을 사랑으로 상쇄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내 대적자와 의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내 지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뜻에 합당한 자세를 보는 곳에서 돕는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피하려고 시도하라. 너희가 내 대적자가 들어오는 일을 막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피할 수 없으면, 너희는 더욱 긴밀하게 나와 연결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의 일꾼들이 너희 주

변의 영역을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게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를 기울이고 내 대적자가 얼마나 계속해서 역사하는 지를 바라보라. 그를 깨닫고 그에게 등을 돌리라. 모두가 단지 이렇게 하기 위한 힘을 진지하게 원하면, 받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에 그의 역사는 아주 강하다. 그러나 넘치는 은혜가 너희가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그에게 패배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은혜를 활용하라. 그로부터 보호와 힘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부름은 진실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싸우거나 또는 섬기는 일.

B.D. No. **7097**
1958 년 4 월 19 일

어떤 사람도 이 땅의 과정에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는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로 머물기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왜냐면 단지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 아직 많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는 혼이 성장하기 때문이고 혼이 이 땅의 과제를 더욱 양심적으로 성취하기 원할수록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더 많이 혼에게 달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싸움은 대적자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게 영향을 미치는 시도를 통해 혼을 얻기 위한 내 대적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혼이 이제 진지하게 나를 원하면, 혼은 무엇보다도 내 대적자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런 욕망에 저항해야만 한다. 이 일은 많은 진지함과 힘이 요구 된다. 그러나 계속하여 능력을 제공을 통한 내 도움을 구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항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는 다시 말해 자신의 욕망과 덕스럽지 못한 성품과 싸우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내 대적자가 들어오는 것을 항상 더욱 잘 막는다. 이런 승리는 동시에 자기 사랑을 뒤로 하는 일이다.

내 편에서 제공하는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능력은 이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를 위해 사용 된다. 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의미하고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싸우거나 또는 섬겨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이뤄지는 싸움에서 승리가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의 내면이 이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승리해야만 하는 어려운 싸움을 적게 할 것이다. 또는 그가 대적자의 뜻을 따르게 하려는 대적자의 공격을 받으면, 그는 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신의 혼과 자신의 육체의 입자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과 그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 그가 내 임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대적자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자이다. 내적인 싸움은 항상 아직 너희를 향한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이미 너희가 그의 사슬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고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사랑없음을 통해 너희는 너희가 아직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한 싸움을 할 것이다. 너희는 동시에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 강제하는 능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의지가 있으면,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막기 원하는 자에 대항해 승리하게 너희에게 진실로 능력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사랑으로 섬길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혼에 대해 작업하기 원하지 않는 이로써 단지 희귀하게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 대적자의 의지를 성취시키려는 자세가 더 많이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각한 운명적인 일을 통해 다른 생각하게 만들면서 강철과 같은 손으로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들은 자주 세성적으로 어려운 운명을 적게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강철과 같은 손으로 다루면, 이는 심한 내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그는 이 싸움에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싸움이 없는 승리는 없다. 싸움이 없이는 혼의 순수하지 못한 입자들이 정화될 수 없다. 싸움이 없이는 그의 내면에 사랑이 특별하게 강하지 않는 한 사람은 같은 성장단계에 머문다. 사랑은 승리자이고 승리자로 남는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의 공격과 유혹은 나로부터 나온 능력인 사랑의 힘에 의해 즉시 패배당하고 물러난다.

왜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쉽게 정화시킨다 사랑은 항상 단지 섬기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와 연합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주님으로 올라가게 하기 원하는 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요, 보호자를 곁에 둔다. 그러나 모든 합격한 시험은 사랑의 힘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나에게 능력을 제공하기를 구해야만 한다. 이 능력은 모든 욕망과 실수와 부덕함을 다스리고 이제 자신의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기보다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를 행할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너희의 과제이고 너희의 이 땅의 목표이고 내 대적자가 항상 방해하기 원하는 것이고 너희 편에서 계속하여 싸우는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능력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고 너희를 아직 묶고 있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로 머물 것이다.

아멘

자기 사랑에 대항하는 싸움.

B.D. No. **7557**
1960 년 3 월 23 일

너희가 아직 전적으로 자기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는 많은 요구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너희에게 싸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는 동안에는 너희가 저세상에서 언젠가 너희의 재산이 될 영적인 재물을 모으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단지 너희의 육체만을 돌본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 아님을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과제를 성취해야만 함을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 단지 적은 정도의 순수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

다. 너희가 먼저 너희 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해야만 할 필요가 없으면, 너희는 이제 이 사랑의 정도를 높이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너희는 이런 자기 사랑을 짓눌러야 한다. 이는 육체적인 만족이 성취되게 요구하는 모든 정욕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항상 의미한다. 관심이 이웃에게 향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다시 말해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길 원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이 사람이 추구하는 일이 돼야만 한다.

이웃을 위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웃을 위해 희생을 드릴 자세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는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자기 사랑은 항상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다.

자기 사랑이 아직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을 줄이기 위해 강한 강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에게 계속하여 세상의 자극이 눈 앞에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가 단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런 시험에서 저항하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는 강제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추구하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게 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의 의지가 선하면, 그는 먼저 자신의 의무를 성취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시키려고 추구할 것이다. 그가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을 때까지 자기 사랑에 대항해 싸우는 일이 줄어들 때까지 추구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자신에 대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지배받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들 안의 사랑은 식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세상적으로 유리한 것만을 구하고 죽음 후의 그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운명은 비참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가난하고 처량한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저세상에서 성장은 아주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들은 자기 사랑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운명만을 생각하고 다른 혼들의 운명은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들이 자신의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일은 아주 어렵다. 그들이 자신을 변화시켜 그들의 눈길을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향할 때까지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위험과 고통 속에 머물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의 삶을 떠나야만 하게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은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혼이 한번 올바른 사랑을 깨달으면, 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혼이 저세상으로 가면, 혼에게 위험이 아주 크지 않다.

그러면 혼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쉽게 성장할 것이다. 혼은 언젠가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혼 자신이 사랑을 행하면 행할 수록 그 안의 사랑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사랑을 행할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혼들이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빛에 도달할 수 있게 모든 혼들을 돕기 때문이다.

아멘

연약한 상태**.** 사랑이 능력을 준다**.**

B.D. No. **8326**
1962 년 11 월 11 일

너희가 실수를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린다고 너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 대적자 편에서 받는 공격을 안다. 나는 나에게 복종하는 너희의 의지를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쓰러지면, 너희에게 항상 단지 일어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너희 혼의 원수는 항상 또 다시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너희 의지가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또 다시 단지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저항은 무기력할 것이다.

너희는 도움을 받는다는 일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 원하고 이런 원함을 너희의 나에 대한 내적인 자세를 통해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연약한 상태에서 빠질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너희가 아직 어디에서 해를 입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항상 너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너희가 죄를 짓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고 능력을 구해 시험의 시간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내 편에 서 있으면, 그는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그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내 보호를 갈망하면,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에게 싸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내 대적자가 너희의 혼을 얻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나에게 헌신한 사람은 내 지속적인 보호를 확신할 수 있다. 대적자가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나는 같은 크기로 내 은혜를 부어 주고 내 사랑으로 대적자와 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단지 너희가 어떠한 주인에게 향할 것인가 정하는 너희의 자유의지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단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대적자는 패할 것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 혼을 위해 싸우는 싸움 가운데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안에 사랑이 밝게 불타올라 너희가 계속하여 섬기지 않는 한 이로써 너희가 높은 성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해 너희들로부터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은 한 싸움이 없이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대적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서 대적자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과 싸우는 일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해야만 한다.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은 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왜냐면 섬기는 일을 그에게 넘치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을 위에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는 나에게 구하거나 또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얻어야 한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너희의 혼이 대적자의 지배를 당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너희들 비틀거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모든 연약함이 너희들로부터 떠나 너희가 모든 대적자의 시험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내 의지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사랑의 행함을 통해 나 자신을 너희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대적자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를 잃기 때문이다.

아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일**.**

B.D. No. **8461**
1963 년 4 월 7 일

나는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진실로 너희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너희는 단지 기도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기도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에게 드려지면, 이 기도를 통해 이미 너희와 나와의 연결이 이루어졌고 능력이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너희가 긴밀하게 부탁을 나에게 올리려는 결단 가운데 너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너희를 도와주기를 나에게 기도를 하는 것 만이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 너희는 생명력이 있게 믿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가 내 뜻을 성취하기에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를 향해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족하게 제공해 주지 않을 너희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내 뜻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항상 더욱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사랑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는 이렇게 하기에 자신이 너무 연약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가 신뢰하며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더 적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려는 사랑은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가 이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자체가 그의 연약한 상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먼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염려를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능력을 구할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추구함을 증명해 주고 이로써 너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단지 너희 심장에 있거나 또는 너희가 기도를 하는 너희의 세상적인 소원을 들어줄지는 너희는 혼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거나 또는 이런 성취된 세상적인 소원이 너희에게 위험이 될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너희의 부름이 심장에서 나오고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면, 내 귀는 너희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실행할 수 없는 과제를 줄 것이라고 너희는 절대로 생각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일은 단지 자기 사랑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너희는 능력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너희의 생각이 어두워 짐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빛을 버렸던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면, 너희의 연약한 상태도 변화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되돌릴 수 없게 부어 주는 내 능력으로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너희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인식하게 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영원으로부터 힘의 원천 자신이 모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제한이 없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받기 위해 자신을 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기도 가운데 나와 연결이 되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은혜이다. 왜냐면 기도를 통해 너희가 모든 것을 도달하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의 믿음이 강한 정도가 너희의 능력을 받는 정도를 정한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너의 자신을 나에게 긴밀하게 의존하고 내 도움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한번 시험해보면, 이런 믿음은 항상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실제로 어떤 기도도 성취를 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의 능력이 강해지기를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능력을 제공해줄 수 없고 너희 스스로 나에게 다가와서 능력을 갈망해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스스로 너희 자신을 열어야만 한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육체도 제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혼이 성장하게 돕고 그가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만약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단지 나 자신에게 의뢰하며 나에게 능력과 빛과 은혜를 구하면, 그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은 건설하는 힘이다. 사랑 없음은 파괴하는 힘이다.

B.D. No. **3910**
1946 년 10 월 21 일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돼야 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서 나온 소유욕이 사랑보다 크다면,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그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이 그에게 영적인 성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아무리 진지하게 그의 이 땅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사랑을 가르쳐도 충분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기간은 영적인 존재의 성장 기간의 단지 짧은 단계이지만, 그러나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의 이 땅의 삶의 유일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 땅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전의 끝없이 긴 성장 기간을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려줘야만 한다. 사람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로 행하고, 이런 일은 항상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도록 모든 일이 같은 정도로 질서를 벗어난다. 왜냐면 외적인 삶의 형편이 겉으로 보기에 질서가 있어 보일지라도, 단지 증가된 사랑이 없는 일로 유지되며, 이런 일은 항상 이웃 사람 자신이나 그의 소유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의 혼과 몸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 향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랑을 죽이고, 사랑을 깨우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사랑이 없는 일은, 자체가 건설하고 유지하는 힘인 사랑과는 달리,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모든 신적인 것은 생명을 주는 힘이고, 이와 완전히 반대인 사랑이 없는 일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지한 존재에게, 그의 이 땅의 삶을 시작한 인간에게 먼저 사랑의 축복에 대해, 멸망하게 만드는 사랑 없음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만 한다. 그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그에게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갈망할 만한 것으로 제시해줘야만 한다. 그가 사랑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는 자신에게서 사랑이 없음의 결과를 느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위반하는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발적으로 사랑을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에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로써 그가 사랑 없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깨닫고, 그가 영원한 질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 지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가려는 추구를 하게 하고, 그가 자유의지로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파괴하는 일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사라질 때, 이 땅은 단지 가장 큰 고난과 육체적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이 가장 큰 고난을 덜어주고, 사람들이 단지 자원하여 사랑을 행한다면, 사람들에게 질서 있는 삶의 형편을 확립하는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 왜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일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랑 없음이 가장 큰 파괴를 일으킨 곳에서 사랑의 역사가 완전히 보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의 법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사랑이 이런 질서를 회복시킨다. 왜냐면 유일하게 사랑이 창조하고, 생명력을 주고, 유지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유일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들의 최종 목표로 인도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그들의 이 땅에 사는 목적대로 성공하게 하고, 사람은 높이 성장하고,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다가 가고, 그의 혼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과 능력을 받음. 사랑은 식었다. 진지한 경고.

B.D. No. **4990**
1950 년 10 월 29 일

모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능력을 받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둔다면, 믿음에 관한 것이든 깨달음에 관한 것이든 너희에게 어떤 연약함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삶은 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사랑으로 드린 것의 천 배를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세상 염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위험과 비참함과 불신과 무지가 인간의 상태임을 알려 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식었고, 이로써 사랑의 역사의 결과인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하게 되었다. 인류는 영의 어두움 속에 살고, 연약하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식었다. 너희는 이 상태가 얼마나 혼에게 심각한 일인지 헤아릴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음은 거절할 수 없게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너희 사람들은 무엇에 도달하려고 하느냐? 비록 너희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역사할지라도, 너희의 모든 시작은 단지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빠지기 때문이다. 너희의 비참한 상태는 단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해 온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너희는 그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 동안을 버림받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요 권세요, 영광이다. 그의 가까이에서 너희들은 축복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의 영은 어두워졌고 눈이 멀고 무능력한 상태에서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눈이 멀고 무능력한 상태로 영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비참한 상태는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해질 것이다.

오직 사랑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오직 사랑이 너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한다. 사랑이 너희에게 힘과 빛을 주고, 너희를 구원한다. 아직 강하게 자기 사랑해 갇혀 있는 너희들은 너

의 자신을 극복하라.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고통에 열린 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 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힘과 빛이 증가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너희가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이로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식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추구하라. 너희 안에 능력이 증가되기를 구하라. 너희가 굳게 흔들리지 않게 믿고, 사랑으로 믿음이 생명력 있게 되기를 추구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고 너희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세상 일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식지 않게 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빠져 다가오는 종말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게 하라.

아멘

거만.

B.D. No. **5341**
1952 년 3 월 21 일

이웃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단지 그럴 때 사랑을 행하여 모든 오만함을 제거한다. 사랑이 이웃을 형제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든 계급 또는 신분의 차이를 보상한다. 섬기는 사랑이 너희 안에 참된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가운데 너희는 예수의 참된 추종자가 된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올바른 삶을 모범을 보이며 살았고, 진실로 모든 충만한 빛과 힘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배하지 않았고, 그의 이웃이 자신을 섬기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섬겼다. 이런 일이 그를 세상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들을 다스리는 자로 높였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의 겉 형체 안을 거처로 삼았고, 그를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오만함과 지배욕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타락한 자의 특징이다. 만약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높인다면, 너희는 자원하여 타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용하고, 그의 자질과 그의 악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너희를 너희 이웃 위로 높이지 말라. 너희의 이웃은 진실로 너희의 형제들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너희를 쉽게 타락하게 한다. 왜냐면 영적으로 오만한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인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참된 사랑은 겸손과 하나이지만 오만함과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항상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증거하고, 이는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 너희가 거만하게 다스리기보다 겸손하게 섬긴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오만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오만함은 내 대적자의 일부이고 그러므로 단지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 맞히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이웃 사랑은 분명히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권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은 불멸하고 언젠가 내 나라에서 혼이 정산을 받을 영적인 가치를 얻게 한다. 이런 가치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웃을 억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과 풍부한 권세를 얻게 한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의하게 얻은 것이 너희를 위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러나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취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취하고,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 반면에 섬기는 사랑은 제한이 없게 주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준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한 겸손이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한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하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확실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영원한 아버지께 인도한다.

아멘